



『三國遺事』 皇龍寺九層塔條의 編年검토

Consideration of the Chronology of the section of Hwangryongsagucheungtap from 『 Samkungnyusa』

저자 (Authors)	허인욱 Heo, Inuk
출처 (Source)	사학연구 , (113), 2014.03, 1-42 (42 pages) Sahak Yonku : The Review of Korean History , (113), 2014.03, 1-42 (42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사학회 The Historical Society Of Kore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07953
APA Style	허인욱 (2014). 『三國遺事』 皇龍寺九層塔條의 編年검토. 사학연구, (113), 1-4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7 15:5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三國遺事』 皇龍寺九層塔條의 編年 검토

허 인 옥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머리말

I. 황룡사탑의 훼손과 重成기록 검토

1. 신라시대 중성기록 검토

2. 고려시대 중성기록 검토

II. 황룡사탑의 정치적 의미

맺음말

● 투고일: 2014. 2. 14. ● 심사일: 2014. 2. 17. ● 게재확정일: 2014. 3. 11.

요약

황룡사탑은 신라 善德女王 14년 3월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같은 왕 15년에 初成되었다. 그 이후 고려시대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과 보수가 이루어졌다. 황룡사탑이 처음 훼손을 입은 것은 聖德王 17년 8월이었다. 원인은 벼락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었다. 이때의 손상은 성덕왕 19년에 가서 복구되었다. 이후 文聖王代에 와서는 지반 불안정으로 인해 탑이 기울어졌는데,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景文王 8년에 낙뢰로 인해 다시 심각한 피해를 입자, 경문왕 11년 정월에 개조명령이 내려지기에 이르렀다. 이 개조 작업은 같은 해 8월 12일에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 경문왕 13년 9월에 가서 끝을 맺었다. 당시 경문왕이 황룡사탑 개조작업을 벌인 것은 황룡사탑이 갖는 호국이라는 의미를 이용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신라 말인 景哀王 4년에 북쪽으로 기울어지는 피해가 다시 있었으나, 왕이 살해당하는 등의 혼란한 상황이어서 탑을 복구할 정도의 여력은 그리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光宗 4년에 낙뢰에 인한 화재가 일어 전소된 기록이 처음 나타난다. 이때 입은 피해는 穆宗 7년에 가서 재건되었다. 현종대에 가서는 3년과 12년에 2차례 수리를 하였는데, 이 중 顯宗 3년의 수리는 팔관회를 부활시킨 崔沆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거란의 침입을 극복해 내고자 하는 염원이 담긴 보수였다.

이후 황룡사탑은 靖宗 원년에 낙뢰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데, 文宗 18년에 가서 보수가 이루어졌으며, 다시 獻宗 원년 6월과 10월의 2차례 훼손이 기록되어 나타난다. 이 훼손은 현종 원년 8월부터 肅宗 원년에 걸쳐 수리가 되었다. 황룡사탑은 高宗 25년 몽골병에 의해 완전히 소실된 이후에는 더 이상의 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三國遺事』 「皇龍寺九層塔」조를 비롯해 여러 기록에 훼손과 중성 기

록이 남겨진 것은 신라와 고려 사회에 황룡사탑이 갖는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다. 선덕여왕은 황룡사탑 조성 때에 탑에 호국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국난극복과 내부단합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그 의미는 신라의 삼국 병합 이후에 더욱 강조가 되었다. 황룡사탑의 의미는 고려 전기까지도 꾸준히 유지되었다. 이는太祖王建이 황룡사탑의 사례를 본 따 西京에 9층 탑을 세워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거나, 현종대 거란 침입을 극복하기 위해 朝遊宮의 재목을 이용해 황룡사탑을 수리한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하지만 고려 毅宗과 仁宗代에 들어서서 중흥궐 등 호국의 의미를 대신하는 건물이 창건되었는데, 이는 고려 내에서 황룡사탑이 갖는 위상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황룡사탑을 포함한 신라삼보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일 뿐, 국가를 다스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태조의 질문은 개인적인 호기심 차원이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김부식의 史論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 황룡사탑이 고종 25년에 소실되고 나서 더 이상의 중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그러한 의미 약화와 관련을 맺는다.

주제어 : 황룡사구층탑, 황룡사, 선덕여왕, 고려 태조, 호국, 팔관회, 신라 삼보

머리말

황룡사탑은 慈藏의 발원으로 선덕여왕 12년(643)에 百濟 匠人인 阿非知가 伊干 龍春과 함께 200여 명을 거느리고 2년의 작업을 거쳐 선덕여왕 15년에 완성되었다. 황룡사탑은 고려 高宗代에 가서 완전히 소실될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과 중성을 반복하였다. 『三國遺事』 「皇龍寺九層塔」조에는 황룡사탑을 건설하게 된 배경과 건립과정·탑의 규모 그리고 몽골에 의해 탑이 전소되기까지 여러 차례 있었던 훼손과 重成 관련 기록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¹⁾

황룡사탑과 관련된 내용들은 『삼국유사』 이외의 「皇龍寺九層塔刹柱本記」(이하 찰주본기)나 『고려사』 등에서도 다른 탑에 비해 풍부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점은 황룡사탑이 갖는 의미가 남달랐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황룡사탑과 관련된 기록을 보다보면, 문헌 간에 편년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가 목격된다.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오류를 지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²⁾ 신라부터 고려시대까지의 기록 전체 편년을 살펴보기 보다는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일부분만 언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 1) 황룡사탑에 관한 그 동안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양정석, 2004, 『皇龍寺의 造營과 王權』, 서경, 154~157쪽 참조.
- 2) 李基白, 1978, 「皇龍寺와 그 創建」, 『新羅時代 國家佛敎와 儒敎』, 한국연구원(1986,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재수록); 秦弘燮, 1987, 「三國遺事に 나타난 塔像-皇龍寺塔像을 중심으로-」, 『三國遺事の 綜合的 檢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金東賢, 1987, 「三國遺事와 皇龍寺址」, 『三國遺事の 綜合的 檢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글은 寺址의 遺構內容을 첨가하여 1991, 「慶州 皇龍寺址에 대한 遺構內容과 文獻資料와의 比較檢討」, 『佛敎美術』 10에 게재); 金相鉉, 1992, 「皇龍寺九層塔考」, 『中齋張忠植博士華甲紀念論叢』(歷史學篇); 趙由典, 1992, 「新羅 皇龍寺 九層木塔址 基壇土 出土遺物の 性格」, 『中齋張忠植博士華甲紀念論叢』(歷史學篇); 權鍾滿, 1998, 『韓國 古代木塔의 構造 및 意匠에 관한 研究: 皇龍寺 木塔의 復元的 考察을 중심으로』, 成均館大學校博士學位論文.

정확한 편년이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기록이 갖는 시대적인 혹은 역사적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편년 비정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우선 황룡사탑과 관련된 기록들 사이에 보이는 차이를 꼼꼼히 살펴본 후, 정확한 편년을 비정하는데 집중하고자 한다. 그리고 황룡사탑이 다른 탑에 비해 많은 기록이 남게 된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나마 논의해 보고자 한다.

I. 황룡사탑의 훼손과 重成기록 검토

앞서 황룡사탑과 관련된 편년들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는데, 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삼국유사』 「황룡사구층탑」조의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造成과 관련한 내용을 보자.

가-1) 신라 제27대 宣德王이 즉위 5년인 貞觀 10년 丙申에 慈藏法師가 서쪽에 학문을 닦으러 갔다. …(중략)… 중국 太和池 가를 지나는데, 홀연히 神人이 나타나 물었다. …(중략)… 慈藏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는 北으로 靺鞨에 連하고, 南으로 倭人에 接하고 또 高句麗·百濟의 2국이 변경을 차례로 침범하는 등 이웃 外寇가 縱橫하니 이것이 백성들의 患難이 됩니다.”라고 하였다. 神人이 “지금 그대의 나라는 女子를 임금으로 삼아 德은 있으나 위엄이 없는 까닭에 隣國이 도모하려는 것이니 빨리 本國으로 돌아가시오.”라고 하였다. (慈藏이 “故鄉에 가서 무엇을 하면 利가 되겠습니까?”하고 묻자, 神人은 “皇龍寺護法龍은 곧 나의 長子로 梵王의 命을 받아 그 절을 보호하고 있으니, 본

국에 돌아가 그 절에 九層塔을 만들면 隣國이 항복하고 九韓이 와서 朝貢하여 王業이 길이 泰平할 것이요. 탑을 세운 뒤에는 八關會를 열고 죄인을 용서하면 外賊이 해치지 못할 것이요. …(중략)… (『寺中記』에 이르기를 ‘終南山 圓香禪師에게서 탑 세우는 이유를 들었다’고 했다). 貞觀 17년인 癸卯 16일에 자장법사는 당 황제가 준 佛經·佛像·袈裟·幣帛 등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탑 세울 일을 임금에게 말했다. …(중략)… 또 海東의 명현 安弘이 지은 『東都成立記』에는 “신라의 제 27대에는 女王이 주가 되니, 비록 도는 있어나 위엄이 없어 9韓이 침범하는 것이다. 만일 대궐 남쪽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우면 이웃나라가 침범하는 재앙을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중략)… 『國史』와 『寺中古記』에 의하면, 眞興王 癸酉(553)에 절(皇龍寺)을 창건한 후 善德王代인 貞觀 19년 乙巳(645)에 (9층)탑이 初成되었다.³⁾

가-1)은 『삼국유사』 「황룡사구층탑」조 가운데 황룡사탑의 창건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황룡사탑은 당에서 유학을 하고 온 자장의 건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점은 『삼국사기』 선덕여왕 14년 3월에 황룡사탑을 創造한 것은 慈藏의 청을 따른 것⁴⁾이라는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자장이 황룡사탑의 建造를 선덕여왕에게 건의하게 된 배경에는 대화

3) 新羅第二十七善德卽位五年貞觀十年丙申 慈藏法師西學 …(中略)… 經由中國太和池邊 忽有神人出問 胡爲至此 …(中略)… 藏曰 我國北連靺鞨 南接倭人 麗濟二國 迭犯封陲 隣寇縱橫 是爲民梗 神人云 今汝國以女爲王 有德而無威 故隣國謀之 宜速歸本國 藏問歸鄉 將何爲利益乎 神曰 皇龍寺護法龍是吾長子 受梵王之命 來護是寺 歸本國 成九層塔於寺中 隣國降伏 九韓來貢 王祚永安矣 建塔之後 設八關會 赦罪人 則外賊不能爲害 …(中略)… 寺中記云於終南山 圓香禪師 處受建塔因由 貞觀十七年癸卯十六日將 唐帝所賜經·像·袈裟·幣帛 而還國 以建塔之事 聞於上 又海東名賢 安弘撰 東都成立記云 新羅第二十七代女王爲主 雖有道無威 九韓侵勞 若龍宮南皇龍寺建九層塔 則隣國之災 可鎮 …(中略)… 又按國史及寺中古記 眞興王癸酉創寺後 善德王代 貞觀十九年乙巳塔初成(『三國遺事』卷3, 塔像4 皇龍寺九層塔).

4)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宣德王 14年 3月.

지에서 만난 神人の 가르침 때문이었다. 하지만 신인은 실존 인물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서술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래서인지 「황룡사구층탑」조에는 세주로 황룡사탑의 창건이 圓香禪師로부터 연유됐다는 「寺中記」의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원향선사의 존재는 경문왕 12년(872)에 왕명으로 朴居勿이 작성한 찰주본기에서도 확인된다. 그 기록을 보면, “선덕왕 12년(643)에 자장이 신라에 돌아오고자 하여 終南山의 圓香禪師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사직하니 선사가 ‘내가 觀心으로 그대의 나라를 보니, 황룡사에 9층의 탑을 세우면 海東의 여러 나라가 모두 그대의 나라에 항복할 것이다.’라고 하였다.”⁵⁾는 언급이 있다. 황룡사탑의 건립 제안자가 중남산의 원향선사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원향선사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⁶⁾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찰주본기는 고려 忠烈王代에 편찬된 『삼국유사』보다 400여년 앞서 작성된 동시대 자료라는 점에서 다른 기록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다른 자료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원향선사의 영향을 받아 황룡사탑이 조성되었다고 이해하는 것⁷⁾이 좀 더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⁸⁾

-
- 5) 「皇龍寺九層塔刹柱本記」의 기록은 황수영진집간행위원회, 1999, 「新羅 皇龍寺九層塔誌」, 『黃壽永全集』 4 금석유문, 해안, 615~617쪽을 참조했다. 이하 동일하다.
- 6) 원향에 대해 南東信은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첫째는 자장과 도선의 관계로 미루어서 도선일 가능성, ‘觀心’이라는 천태학의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미지의 천태종 승려일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禪師라는 말을 통해 선종 승려일 가능성이 그것이다(南東信, 1992, 「慈藏의 佛敎思想과 佛敎治國策」, 『韓國史研究』 34, 23쪽 각주 87). 남무희는 ‘남산원향선사’를 ‘남산의 원향선사’로 이해한다면, 자장의 문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기했다(남무희, 2009, 「자장의 생애 복원」, 『한국학논총』 32, 182쪽 각주 48).
- 7) 李基白, 1986, 앞의 책, 71쪽.
金相鉉은 신인은 종교적 윤색이며, 원향선사의 영향이 사실에 가까울 것으로 봤으며(金相鉉, 1992, 앞의 논문, 41쪽), 남무희는 「寺中記」의 기록이 원초적이라고 하면서, 오대산의 문수보살이나 신인은 오대산 신앙과 관련지어 윤색한 것으로 이해했다(남무희, 2009, 「『三國遺事』에 반영된 고려 국내 유훈 「慈藏傳」의 복원과 그 의미」, 『한국학논총』 34, 542쪽).
- 8) 辛鍾遠은 황룡사구층탑을 세우자고 건의한 이를 大興善寺舍利塔을 보고 온 安弘은

자장이 신라에 귀국한 해는 가-1) 황룡사탑조와 찰주본기에 모두 선덕여왕 1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삼국사기』에 자장이 선덕여왕 12년 3월에 귀국했다⁹⁾는 기록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이 가능하다. 가-1)을 보면, 자장이 ‘貞觀 17년 癸卯 16일’ 즉, 선덕여왕 12년에 신라로 돌아와 탑의 조성을 건의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선덕여왕 12년 □월 16일’은 자장이 선덕여왕에게 造塔을 건의한 날임을 알 수 있다. 자장이 귀국과 동시에 탑의 건조를 청했다고 여겨지므로, ‘선덕여왕 12년 □월 16일’은 ‘선덕여왕 12년 3월 16일’로 추정된다.

가-1)의 「황룡사구층탑」조와 『삼국사기』는 탑의 착공과 완성시기와 관련해서도 차이를 보인다. 가-1)은 정관 19년에 初成되었다고 하여 선덕여왕 14년(645)을 탑이 완성된 시기로 기재한 반면에, 『삼국사기』는 선덕여왕 14년 3월에 황룡사탑을 創造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創이 ‘비롯하다’·‘시작하다’의 의미임을 고려하면, 선덕여왕 14년 3월은 공사 시작 시점으로 볼 여지가 있다.¹⁰⁾ 그렇다면 이 두 기록은 서로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된다. 즉 선덕여왕 14년을 『삼국사기』는 착공시기로, 가-1)의 『삼국유사』 황룡사탑조는 완성시기로 각각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상반된 이 두 기록으로는 어느 것이 옳은지 단정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 도움을 주는 것이 찰주본기이다. 그 내용 가운데에 “선덕왕 14년 을사에 처음 건립하기 시작하여 4월에 …(중략)… 刹柱를 세우고 이듬해에 모두 마쳤다.”¹¹⁾는 서술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찰

로 추정했다(辛鍾遠, 1992, 「安弘과 新羅佛國土說」 『新羅初期佛敎史研究』, 民族社, 244쪽). 하지만, 安弘의 존재와 그의 행적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다. 따라서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기 전까지는 자장으로 보는 것이 옳은 듯하다.

9)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宣德王 12年 3月.

10) 최희준, 2011, 「『三國遺事』 皇龍寺九層塔條에 대한 재검토와 阿非의 출처」 『한국학논총』 36, 38쪽.

11) 其十四年歲次乙巳始構建四月□□ 立刹柱明年乃畢功(「皇龍寺九層塔刹柱本記」).

주본기는 당대 자료이다. 그만큼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기록에 황룡사탑이 선덕여왕 14년에 조성되기 시작하여 다음 해인 선덕여왕 15년에 완료가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즉 선덕여왕 14년 3월은 황룡사탑을 조성하기 시작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이 옳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황룡사구층탑」조는 앞서 살펴본 창건 배경과 황룡사탑 초성에 대한 서술에 이어 낙뢰로 인한 황룡사탑의 훼손과 피해를 보수한 기록이 이어져 나타난다. 황룡사탑조의 훼손과 중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이해의 편의를 위해, 신라대의 초성과 중성을 담고 있는 가-2)부분과 고려대의 중성을 다룬 3)부분으로 나누어 인용하였다).

가-2) (『國史』와 『寺中古記』에 의하면) ㉠ 32대 孝昭王 卽位7년인 聖曆 元年 戊戌 6월에 霹靂이 있었다(『寺中古記』에 聖德王代라 한 것은 잘못이다. 聖德王代에는 戊戌이 없다). ㉡ 제33대 聖德王代 庚申歲에 重成되었다. ㉢ 48대 景文王代 戊子 六月에 제2차로 霹靂이 있었으며, ㉣ 同王代에 세 번째 重修되었다.

3) ㉠ 本朝 光宗 卽位 5年 癸丑 十月에 제3차로 霹靂이 있었다. ㉡ 現宗 13년 辛酉에 4차로 重成되었다가 ㉢ 또 靖宗 2年 乙亥에 4차로 霹靂이 있었다가 ㉣ 文宗 甲辰年에 5차로 重成되었다. ㉤ 또 憲宗 末年 乙亥에 5차로 霹靂이 있었고 ㉥ 肅宗 丙子에 6차로 重成되었다가 ㉦ 또 高宗 16年 戊戌 冬月에 西山兵火로 塔寺·丈六·殿宇가 모두 燒失되었다고 한다.¹²⁾

12) 三十孝昭王卽位七年聖曆元年戊戌六月霹靂(寺中古記云 聖德王代誤也 聖德王代無戊戌)第三十三聖德王代庚申歲重成四十八 景文王代戊子六月第二霹靂 同代第三重修 至本朝光宗卽位五年癸丑十月第三霹靂 現宗十三年辛酉第四重成 又靖宗二年乙亥第四霹靂 又文宗甲辰年第五重成 又憲宗末年乙亥第五霹靂 肅宗丙子第六重成 又高宗十六年戊戌冬月西山兵火塔寺丈六殿宇皆災(『三國遺事』 卷3, 塔像4 皇龍寺九層塔).

가-2)에 보이는 기록 가운데 ‘왕대+간지’로 되어 있는 것들을 ‘왕호+재위년(서기)’으로 바꾸면, ㉠ 聖德王 庚申은 성덕왕 19년(720), ㉡ 景文王 戊子는 경문왕 8년(868)이다. 가-3)은 ‘왕호+재위년+간지’와 ‘왕호+간지’의 두 가지 형태가 섞여있다. 기록 가운데 ② 現宗은 顯宗을, ⑤ 憲宗은 獻宗을 오기한 것이다. 가-3)의 ‘왕호+재위년+간지’ 형태를 정리하면, ① 光宗 즉위 5년 癸丑, ② 現宗 13년 辛酉, ③ 靖宗 2년 乙亥의 사례가 보인다. 이들은 각각 광종 4년(953)과 顯宗 12년(1021) 그리고 정종 원년(1035)에 해당한다. 이어 ‘왕호+간지’ 형태로는 ④ 文宗 甲辰年, ⑥ 肅宗 丙子가 있는데, 각각 문종 18년(1064)과 숙종 원년(1096)에 해당한다. 가-2)·3)은 『고려사』의 편년과 1년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踰年稱元法과 卽位年稱元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¹³⁾

善德女王 14년(645)에 初成된 이후 고종 16년(1238)에 완전히 소실되기 전까지 황룡사탑은 훼손이 6차례(가-2)㉠ ㉡·가-3)① ③ ⑤ ⑦), 重成이 5차례(가-2)㉠ ㉡·가-3)② ④ ⑥)가 있었던 듯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三國史記』와 『高麗史』 그리고 『高麗史節要』 등에는 가-2와 3)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더 많은 훼손과 보수 기록이 찾아진다. 『삼국유사』의 「황룡사구층탑」조 외에 다른 문헌들에 보이는 내용과 편년의 비교가 필요한 것이다. 편의상 신라와 고려시대로 절을 나누어 편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3) 고려에서는 왕이 즉위하면 그 해를 원년으로 계산하는 즉위년칭원법을 사용하였는데(小田省吾, 1920, 「三國史記の稱元法并に高麗以前 稱元法の研究」 上·下 『東洋學報』 10-1-2), 원간섭기에 가서는 유년칭원법으로 고쳤다(鄭求福, 1999, 「高麗朝 史館과 史官의 史論」 『韓國中世史學史』(I), 集文堂, 138~141쪽).

1. 신라시대 중성기록 검토

가-2)를 보면, 황룡사목탑이 처음 훼손을 입은 것은 효소왕 7년(698) 6월이었다(㉠). 이 피해는 성덕왕 19년(720)에 가서 복구되었다(㉡). 이후 경문왕 8년(868) 6월에 낙뢰피해를 입었는데(㉢), 같은 왕대에 다시 보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삼국사기』 등의 기록과 합치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1) (聖德王) 17년 여름 6월 皇龍寺塔에 벼락이 쳤다.¹⁴⁾

2) ① (景文王 8년) 6월에 皇龍寺塔에 벼락이 쳤다.¹⁵⁾

② (경문왕) 11년 正月에 왕이 有司에게 명하여 皇龍寺塔을 改造케 하였다.¹⁶⁾

③ (탑을 세운지) 190년을 지나 文聖王代에 이르니, (탑을 세운 지)가 오래 되어 □(탑이) 동북쪽으로 기울어졌다. 나라에서 쓰러질까 염려하여 고쳐 세우고자 여러 재물을 모은 지 30여년이 되었으나, 아직 고쳐 세우지 못하였다. 지금의 왕이 즉위한 지 11년인 咸通年間의 辛卯(871)에 탑이 기울어진 것을 애석하게 여겨 왕의 친동생인 上宰相 이간 金魏弘이 책임자가 되고 寺主人 惠興을 聞僧이자 脩監典으로 삼아 그들과 前 大統이자 政法和尚인 大德 賢亮과 대덕 普緣·康州輔인 重阿干 金堅其 등 승려와 관인들이 그해 8월 12일 처음으로 낡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만들도록 하였다[廢舊造新]. …(중략)… 이듬해 7월에 9층을 모두 마쳤다. 그러나 찰주에 움직이지 않아 왕께서 찰주에 본래 봉안한 사리가 어떠한지 염려하여 伊干 承旨에게 임진년(872) 11월 6일에 여러 신하를 이끌고 가보도록 하였다. …(중략)… 25일에 본래대로 두었다. 또 더하여

14) 夏六月 震皇龍寺塔(『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聖德王 17年).

15) 夏六月 震皇龍寺塔(『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景文王 8年).

16) 十一年春正月王命有司改 造皇龍寺塔(『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景文王 11年).

사리 백 개와 法舍利 2종을 안치하였다.¹⁷⁾

④ (경문왕 13년) 가을 9월에 皇龍寺塔이 이루어지니, 9層으로 높이는 22丈이었다.¹⁸⁾

3) (景哀王 4년) 3월에 皇龍寺塔이 搖動하여 북쪽으로 기울었다.¹⁹⁾

나-1)·2)① ② ④·3)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황룡사탑 관련 기록이고, 나-2)③은 찰주본기의 내용 일부이다. 가-2)①에 효소왕 7년(698) 6월의 낙뢰 사실은 사료 나)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성덕왕 17년(718) 6월의 낙뢰로 인한 훼손(나-1)이 눈에 띈다. 두 차례의 훼손과 관련되어 연관되는 것은 성덕왕 19년의 중성(가-2)㉠ 기록이다. 이 기록들은 효소왕 7년과 성덕왕 17년에 2차례에 걸쳐 훼손을 입었던 것을 성덕왕 19년에 수리를 하였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다.²⁰⁾

하지만 가-2)의 효소왕 7년에는 “『寺中古記』에 聖德王代라 한 것은 잘못이다. 聖德王代에는 戊戌이 없다”라는 細註가 첨부되어 있어 논란거리를 제공한다. 『삼국유사』의 저자 一然이 성덕왕대에 무술에 해당하는 재위연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성덕왕대와 가장 가까운 시기의 무술년 즉, ‘효소왕 7년’으로 정정한 사실을 말해주는 서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효소왕 7년’은 성덕왕대의 어느 한 시기로 볼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이

17) 歷一百九十五□ 既于文聖大王之代年□ 既久向東北傾 國家恐墜擬將改作□ 致衆材三十餘年 其未改構 今上卽位十一年咸通辛卯歲恨其□傾 乃命親弟上宰相伊干魏弘爲今 臣寺主惠興爲聞僧及脩監典其人 前大統政法和尙大德賢亮大統兼政法和尙大德普緣·康州輔重阿干堅其等 道俗以其年八月十二日始廢舊造新 …(中略)… 明年七月九層畢功 雖然刹柱不動 上慮柱本舍利如何 令臣伊干承旨取壬辰年十一月六日率群僚而往 …(中略)… 廿五日還 依舊置 又加安舍利一百枚法舍利二種(황수영전집 간행위원회, 1999, 앞의 책, 615~616쪽).

18) 秋九月 皇龍寺塔成九層高二十二丈(『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景文王 13년).
19) 三月 皇龍寺塔搖動北傾(『三國史記』 卷12, 新羅本紀12 景哀王 4년).
20) 權鍾浦은 성덕왕 19년에 가서야 중성이 있었다는 점은 효소왕대의 벼락으로 인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고, 성덕왕 17년의 피해로 인해 1차 중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했다(權鍾浦, 1998, 앞의 논문, 157~158쪽).

아님을 말해준다.

세주를 고려하면, 「寺中古記」에는 본래 ‘聖德王 戊戌 六月 霹靂’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성덕왕대에는 재위 7년(708)의 戊申과 17년(718)의 戊午 그리고 27년(728)의 戊辰이 있을 뿐, 「사중고기」에 보이는 무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가운데 무오에 해당하는 성덕왕 17년의 경우가 주목된다. 이는 나-1)에 보이는 성덕왕 17년 6월과 일치하는 기록이기 때문이다. 「사중고기」의 ‘聖德王 戊戌 六月’은 ‘聖德王 戊午 六月’의 오기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타인지 선행 연구에서도 『삼국사기』의 서술을 우선시해 효소왕 7년은 성덕왕 17년의 오기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²¹⁾ 필자 역시 『삼국유사』에 보이는 효소왕 7년은 성덕왕 17년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황룡사구층탑」조에서 효소왕 7년으로 착오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사중고기」의 편찬자가 ‘戊午 6월’을 ‘戊戌 6월’로 기재한 탓이거나, 一然이 「사중고기」의 글을 참고하여 『삼국유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무오를 무술로 오독하고 가까운 효소왕대의 무술로 바꿔 기재하면서 빚어진 오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어 나타나는 나-2)는 경문왕대의 훼손과 중수에 관한 기록들이다. 나-2)①·②·④는 『삼국사기』, 나-2)③은 찰주본기의 내용이다. 앞서 언급한 『삼국유사』 황룡사탑조에는 경문왕 8년 6월의 낙뢰(가-2)㉔)와 이로 인한 중수(가-2)㉕) 기록이 있다. 경문왕 8년의 낙뢰는 『삼국사기』에도 동일하게 보인다(나-2)①).²²⁾ 황룡사탑조에 경문왕대의 보수 시기가 언제인

21) 李基白, 1986, 앞의 책, 72쪽; 金相鉉, 1992, 앞의 논문, 8~9쪽

22) 李基白은 景文王 8년에 보이는 낙뢰 기록을 「사중고기」의 무자로 보면서 경문왕 9년으로 이해했다(李基白, 위와 같음). 하지만 무자는 경문왕 8년이다. 무언가 착오를 일으킨 듯하다.

지 명확히 기재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 낙뢰 이후인 경문왕 11년(871)에 황룡사탑 보수 명령이 있었고 (나-2)②), 같은 왕 13년(873)에 가서 완료되었다(나-2)④)고 하면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²³⁾

그런데 찰주본기(나-2)③)는 「황룡사구층탑」조와 『삼국사기』에 보이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경문왕대의 보수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먼저 보수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해 살펴보자. 찰주본기에는 황룡사탑이 조성한지 오래되어 자연적으로 기울어졌고 그로 인해 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경문왕 8년의 낙뢰 때문에 개조했다는 『삼국사기』의 서술과는 다른 원인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찰주본기에 의하면 황룡사탑이 기울어진 것은 문성왕대(839~857)였다. 수리를 위해 재목을 모은 지가 30여년이라는 내용을 고려하면, 황룡사탑이 기울어진 것은 문성왕 2년(840)경을 전후한 시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탑이 자연적으로 기울어졌다는 찰주본기의 내용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慶州가 지진 발생이 많은 곳이라는 점을 그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주는 양산단층과 울산(불국사)단층이 통과하는 지역으로,²⁴⁾ 신라대부터 많은 지진 발생이 한 곳이기 때문이다.²⁵⁾ 잦은 지진으로 인한 지반 불안정이 황룡사탑을 기울

23) 찰주본기에는 경문왕 11년(871)에 金魏弘이 책임자가 되어 수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김위홍은 『삼국유사』 황룡사탑조에 보이는 有司와 동일인이라 생각된다.

24) 윤순옥·황상일, 2009, 「삼국사기를 통해 본 한국 고대의 자연재해와 가뭄주기」 『대한지리학회지』 44-4, 505쪽.

25) 『삼국사기』 新羅本紀에서만 해도 48회 정도의 지진 기록이 찾아질 정도이다(김호상·황보은숙, 2006, 「新羅王京에 나타난 自然現象」 『신라문화계학술발표논문집』 27, 239~240쪽). 신라본기에 기재된 惠恭王 15년(779) 3월의 지진의 경우를 보면, 이 지진으로 민가가 무너지고 100여명의 사람이 사망할 정도였다(『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 9 惠恭王 15年 3月). 이때의 지진 규모는 6.7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민정·김영석, 2010, 「경주지역 석조 문화재에 대한 고고지진학적 접근」 『대한지질학회 학술지』, 66쪽).

게 한 원인이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경문왕 8년의 낙뢰로 인한 화재(나-2)②)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보완이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즉, 문성왕 2년경에 지반 불안정으로 인해 탑이 기울게 되었으나, 신라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30여 년 동안 수리를 하지 못하다가 경문왕 8년의 낙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자, 더 이상 방치해 둘 수가 없어 경문왕 11년에 改造를 단행했다고 하면,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삼국사기』와 찰주본기는 탑의 개조 착공과 완성시점 사이에도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성의 시작을 언급한 『삼국사기』는 경문왕 11년 정월에 왕의 개조 명령이 있었다(나-2)②)고 한 반면에, 찰주본기는 경문왕 11년 8월 12일에 廢舊造新하였다(나-2)③)고 하는 것이다. 대략 8개월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난다. 이 착공 시점의 차이에 대해서는 경문왕이 탑의 개조를 명령한 것은 경문왕 11년 정월이고 監典을 조직하는 등의 기초적인 작업을 마치고 공사에 착공한 때를 같은 해 8월 12일이라고 본 기존 견해가 도움을 준다.²⁶⁾

완공 시점과 관련해서 찰주본기에는 경문왕 12년 7월에 9층을 마쳤다(나-2)③)고 한 반면에, 『삼국사기』에는 경문왕 13년 9월에 완성되었다고 한다(나-2)④). 14개월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찰주본기는 경문왕 12년 11월 25일에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경문왕 12년 7월에 9층까지 마쳤다(나-3)③)는 서술을 잘못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²⁷⁾ 이러한 점은 『삼국사기』의 기록 또한 마찬가지이다. 오류로 볼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9층까지 마친 후에 다시 찰주를 들어 올리고 사리 등을 봉안하는 작업이 이

26) 金相鉉, 1992, 앞의 논문, 9쪽.

27) 李基白은 景文王 11년에 시작하여 다음해인 12년에 완성된 것으로 이해했다(李基白, 1986, 앞의 책, 72쪽).

루어졌다는 চাল주본기의 서술에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경문왕 12년 7월에 9층까지 완성되었다는 서술은 চাল주를 세우고 사리를 봉안한 것을 표현한 것으로, 외관을 포함한 탑 전체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황룡사탑은 9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나선형 구조의 계단이 있었으며, 처마 등에 단청도 칠해져 있었다.²⁸⁾ 따라서 চাল주를 세웠더라도 이후의 후반 작업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렇게 본다면, 경문왕 13년 9월의 완성 표현은 단청 채색 등의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²⁹⁾ 즉, 경문왕 13년 9월은 모든 작업이 끝난 최종시점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경문왕 13년에 개조가 완성된 황룡사탑은 景哀王 4년(927) 3월에 북쪽으로 기울어졌다(나-5). 이 또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라 여겨진다. 경애왕 4년에는 지진 관련 기록이 찾아지지 않지만, 앞선 神德王 2년(913)과 5년(916)의 지진 기록이 있으며, 1년 뒤인 敬順王 2년(928) 6월에도 지진 기록이 나타나,³⁰⁾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었는지는 기록의 부재로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 당시 신라는 견훤에 의해 景哀王이 살해당하고 敬順王이 즉위하는 혼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³¹⁾ 이후에도 후백제와 고려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았다는 점에서 황룡사탑을 수리할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8) 이에 대해서는 權鍾滿·李相海, 1997, 「文獻記錄을 통하여 본 皇龍寺 木塔의 結構 및 意匠에 관한 再考察」 『建築歷史研究』 6-3 참조.

29) 秦弘燮도 경문왕 12년은 창건시에 안치한 사리를 점검한 해이므로 개조의 완성은 다음 해로 봐야 한다고 보았다(秦弘燮, 1987, 앞의 논문, 279쪽).

30)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神德王 2年 4月·5年 10月·敬順王 2年 6月.

31)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景哀王 4年 11月.

2. 고려시대 중성기록 검토

황룡사탑은 앞서 언급한 대로 고려시대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과 보수한 기록이 찾아진다. 그런데 『삼국유사』 황룡사탑조에 언급되지 않는 내용들이 여러 기록에서 산견된다. 그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다-1) (定宗) 4년 10월 乙卯에 慶州 黃龍寺九層塔에 화재가 났다.³²⁾
 - 2) ① (光宗 4년)겨울 10월에 慶州 皇龍寺九層塔에 화재가 났다.³³⁾
 - ② 또 俗說에 “黃龍寺塔이 불타던 날에 石鑊 동면에 처음 큰 얼룩이 생겼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고 말한다. 그때는 바로 遼應曆 3년 癸丑이요, 本朝 光宗 5년으로 탑이 세 번째 불타던 때였다.³⁴⁾
 - ③ 顯德 元年 甲寅에 黃龍寺九層塔과 左右金堂·丈六佛이 天火로 소실되었다.³⁵⁾
 - 3) 統和 22년 甲辰에 黃龍寺九層塔과 丈六佛이 완성되었다.³⁶⁾
 - 4) ① (顯宗 3년 5월 己巳) 慶州의 朝遊宮을 헐고 그 재목으로 皇龍寺塔을 수리하였다.³⁷⁾
 - ② (崔沆이) 黃龍寺塔을 수리할 것을 청하고 자신이 감독하였는데, 자못 농사일을 해쳤다.³⁸⁾
 - 5) ① 獻宗 元年 6월 戊寅에 東京 皇龍寺塔에 화재가 났다.³⁹⁾

32) (定宗) 四年十月乙卯 慶州皇龍寺九層塔災(『高麗史』 卷53, 五行志1).
 33) 冬十月 慶州皇龍寺九層塔災(『高麗史節要』 卷2, 光宗 4年).
 34) 又諺云 其皇龍寺塔災之日 石鑊之東面 始有大斑 至今猶然 卽大遼應曆三年癸丑歲也 本朝光廟五載也 塔之第三災也(『三國遺事』 卷3, 塔像4 前後所將舍利).
 35) 顯德元年甲寅 黃龍寺九層塔·左右金堂·丈六佛 天火亡(『東都歷世諸子記慶州沿革』).
 36) 統和二十二年甲辰 黃龍寺九層塔·丈六佛成(『東都歷世諸子記慶州沿革』).
 37) 撤慶州朝遊宮 以其材修皇龍寺塔(『高麗史』 卷4·『高麗史節要』 卷3, 顯宗 3年 5月 己巳).
 38) 請修黃龍寺塔 身自監督 頗傷農務(『高麗史』 卷93, 列傳6 崔沆).
 39) 獻宗元年六月戊寅 東京皇龍寺塔災(『高麗史』 卷53, 五行志1).

- ② 獻宗 元年 8월 甲申에 명령을 내려 東京에 있는 黃龍寺塔을 修理하게 하였다.40)
- ③ 壽昌 元年 乙亥 10월 14일에 黃龍寺塔이 霹靂으로 불이 나 소실되었다.41)
- 6) ① (高宗 25년 閏4월) 蒙兵이 東京에 이르러, 黃龍寺塔을 불태웠다.42)
- ② 戊戌年 10월 11일에 皇龍寺에 몽고인들이 불을 질러 다 타버렸다.43)
- ③ 西山大兵 이후 殿과 塔이 모두 불타버렸다.44)

다-1)~6)은 『삼국유사』 외에 『고려사』나 『東都歷世諸子記慶州沿革』⁴⁵⁾의 기록들로, 황룡사탑이 高麗時代에도 여러 차례의 훼손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 가운데 시기상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다-1)의 定宗 4년(949) 霹靂기사이다. 그런데 이 내용은 가-3)의 『삼국유사』 「황룡사구층탑」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定宗은 재위 4년 3월에 王位를 光宗에게 양위하고 사망하였기 때문에,⁴⁶⁾ 실제로는 光宗 卽位年의 사건이다. 가-3)의 황룡사탑조나 다-2)①의 광종 4년(953) 기록과 같이 광종대에 2차례의 화재가 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종 4년 10월의 삭일은 庚午로, 乙卯가 존재할 수 없다.⁴⁷⁾ 오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1)의 편년을 그대로 수용하여 사료로 이용할 수는 없다.

40) 甲申 命修東京 皇龍寺塔(『高麗史』卷10, 獻宗 元年 8月).

41) 壽昌元年乙亥十月十四日 黃龍寺塔霹靂 火燒亡(『東都歷世諸子記慶州沿革』).

42) 蒙兵至東京 燒黃龍寺塔(『高麗史』卷23·『高麗史節要』卷16, 高宗 25年 閏4月).

43) 戊戌年十月十一日 皇龍寺乙 蒙古人亦 付火燒亡(『東都歷世諸子記慶州沿革』).

44) 西山大兵已後 塔煨燼(『三國遺事』卷3, 塔像4 迦葉佛宴坐石).

45) 『東都歷世諸子記慶州沿革』은 2002, 『慶州先生案』, 慶州市·慶州文化院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이하 동일하다.

46) 『高麗史』卷2, 定宗 4年 3月 丙辰.

47) 삭일에 관해서는 안영숙 외, 2009, 『고려시대 연력표』, 한국학술정보(주) 참조. 이하 동일하다.

그런데 기록을 비교하다 보면, 다-1)의 정종 4년과 다-2)①의 광종 4년이 계절과 을묘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이 ‘慶州皇龍寺九層塔災’로 동일하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왕대가 다르기는 하지만, 재위 4년 10월이라는 공통점도 존재한다. 동일한 기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아울러 정종 4년 10월에는 존재하지 않아 해결이 난망했던 을묘가 광종 4년 10월의 해당 일로 바꿔 적용해 보면 해결이 된다는 사실도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한다. 광종 4년 10월의 삭일은 戊申으로, 8일에 을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종이 아닌 광종 4년 10월 8일의 화재를 말하는 것으로 불여지를 남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자료의 분석이 뒤따라야 하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더 이상의 분석은 어렵다. 다만 앞선 논의만으로 판단한다면, 원래 ‘광종 4년 10월 을묘’였던 해당 기록이 『고려사』 오행지에 삽입되는 과정에서 ‘정종 4년 10월 을묘’로 오기되었을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은 사실이다.⁴⁸⁾

광종 4년의 훼손과 관련해서는 다-2)②·③에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 다-2)②의 『삼국유사』 前後所將舍利條에는 광종 4년 黃龍寺塔이 불타던 날에 石鑊 동면에 큰 얼룩이 생기는 피해를 입었다고 되어 있는데, 석화는 心礎石에 사리공을 파고 그 구멍을 단듯이 덮개를 올려놓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즉, 석화에 얼룩이 생겼다는 것은 심초석까지 불에 그슬릴 정도로 큰 화재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하면, 황룡사탑이 전소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⁴⁹⁾ 이러한 상황은 황룡사탑과 아울러 左右金堂·丈六佛이 소실될 정도였다고 한 『東都歷世諸子記慶州沿革』(다-2)③)

48) 이 편년 설정에 대해서는 가톨릭대학의 채웅석 선생의 가르침이 있었다. 이 편년에 대한 지적은 원래 필자의 다른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있었는데, 필자가 황룡사 구층탑과 관련된 별도의 논문을 작성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이 글에서 그 내용을 기재하게 되었다. 원래 심사했던 논문에서 이 사실을 기재해야 하는 것이 옳지만,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한다. 필자의 부족함에 도움을 준 채웅석 선생께 감사를 드린다.

49) 權鍾滿, 1998, 앞의 논문, 161쪽.

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⁵⁰⁾

광종대의 화재 이후 중성과 관련해서는 다-3)의 통화 22년 즉, 穆宗 7년(1004)에 황룡사탑과 丈六佛이 다시 완성되었다는 기록이 도움을 준다. 물론 이 기록은 『삼국유사』나 『고려사』 그리고 『고려사절요』에서 찾아지지 않으므로, 그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顯宗 3년(1012) 5월에 慶州 朝遊宮의 재목을 이용하여 황룡사탑을 수리[修]하였다(다-4)①)는 기록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목종 7년의 중성 사실은 부정하기가 쉽지 않다. 수리했다는 표현은 황룡사탑이 존재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광종 4년 이후 현종 3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 황룡사탑이 중성되었음을 말해주는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목종 7년의 중성 기사는 光宗代 화재 후에 보이지 않는 중성 사실을 보완해 주는 사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목종대 이후, 탑의 보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종대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기록 간에 보수 시기에 대해서 차이를 보인다. 다-4)① 『고려사』에는 현종 3년으로 되어 있는 반면, 가-3)② 『삼국유사』 황룡사탑조에는 “現宗 13年 辛酉”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삼국유사』 황룡사탑조에 기재된 신유년은 현종 12년(1021)에 해당한다.⁵¹⁾ 즉, 다-4)①과 가-3)②는 각

50) 다-2)③은 광종 5년으로 되어 있어,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정황상 앞서 언급한 광종 4년의 화재 사실과 동일한 것이라 판단된다. 광종 4년의 화재는 심초석이 드러날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했다. 광종 5년 언제쯤에 화재가 다시 있었는지 모르지만, 황룡사구층탑을 새로 건립하는 데는 길게 잡아도 대략 1년 여 정도의 시간 밖에 여유가 없었다. 앞서 초성이 있던 선덕여왕대나 경문왕대의 개조에 준비 작업까지 포함하여 대략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이 점을 고려하면, 1년 안에 재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울러 재건했다 하더라도 다시 벼락을 맞아 전소될 확률은 거의 없다. 따라서 『삼국유사』에서 광종 즉위 5년에 황룡사탑이 벼락을 맞았다는 기록과 『東都歷世諸子記』의 현덕 원년 황룡사탑 화재기록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51) 고려시대에 즉위년칭원법을 따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三國遺事』의 顯宗 13년 辛酉는 서로 어긋나지는 않는 표현이다.

각 현종 3년과 12년에 수리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기록들이다. 이 때문에 두 기록을 긍정하고 현종 3년부터 수리를 시작하여 9년 만에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다.⁵²⁾ 하지만 앞서 전소된 탑을 중성하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참고한다면, 수리를 하는데 9년의 시간이 소요됐다는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아마도 어떠한 사정에 의해 현종 3년과 12년에 각각 수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이해가 아닌가 생각된다.

현종대의 수리는 다-4)②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최항이 황룡사탑의 수리를 청하고 직접 공사를 감독했다고 한다. 『고려사』 열전에는 崔沆의 수리가 언제 있었는지 연도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최항이 현종 15년(1024) 6월에 사망하였고⁵³⁾ 그가 황룡사탑 수리를 건의하고 직접 감독할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종대로 봐도 과히 틀리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최항이 황룡사탑을 보수할 때는 언제일까. 최항의 공사가 농사일에 지장을 주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번기에 노동력 동원이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종대 2차례 기록 중에는 다-4)①의 현종 3년 5월 己巳(2일)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종 3년 5월 2일이 최항이 직접 황룡사탑을 보수하기 시작한 때라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닌 듯하다.

이어 가-3)의 황룡사탑조를 보면, 靖宗 원년(1035)에 낙뢰로 인한 훼손과 文宗 18년(1064)의 중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 내용은 다른 기록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정종대 훼손과 관련해서는 낙뢰 외에 정종 원년 9월의 慶州 등 19고을,⁵⁴⁾ 정종 2년(1036) 6월의 東京(경주)을 포함한 지역에 지진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듯하다. 정종 2년 6월에는 3일 간이나

52) 金東賢, 1991, 앞의 논문, 100쪽.

53) 『高麗史』 卷5, 顯宗 15年 6月 辛酉.

54) 『高麗史』 卷6, 靖宗 元年 9月 癸卯.

지진이 지속되었는데,⁵⁵⁾ 석가탑까지 피해를 입을 정도였다.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에는 2년 뒤인 정종 4년에도 지진이 있었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⁵⁶⁾ 즉 문종대의 중수는 정종 원년의 나뉘로 인한 훼손 외에 정종 초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삼국유사』를 보면, 정종대 이후 황룡사탑의 훼손과 관련해서는 獻宗末年(1095)에 霹靂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이와 동일한 시기의 기록들이 다-5)이다. 다-5)는 헌종 원년(1095) 6월 14일에 화재 발생이 있었고(다-5)①) 같은 해 8월 21일에 수리를 하였으며(②), 다시 같은 해 10월 14일에 벼락으로 소실된 것(③)으로 정리가 된다. 『삼국유사』에는 肅宗元年(1096)에 중성이 있었다(가-3)⑥)는 기록이 보이기도 한다. 훼손과 중성이 2차례씩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사이에 2차례의 화재가 날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5)①)의 獻宗 元年 6월의 삭일은 乙丑으로, 戊寅이 14일에 해당한다는 점도 그러한 생각을 더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4개월 차이가 나는 다-5)①)의 『고려사』와 ③)의 『東都歷世諸子記慶州沿革』이 14일이라는 일자가 공교롭게도 겹치기 때문이다. 이는 두 기록 중 하나가 六과 十을 혼동해 오기했을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 경우 어느 기록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하는 선택에 놓일 수가 있는데, 『고려사』가 원사료의 충실한 재구성을 편찬 원칙으로 삼았다는 점⁵⁷⁾에서 『東都歷

55) 『高麗史』 卷6, 靖宗 2年 6月 戊辰.

56)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에는 太平 16년 즉, 정종 2년 6월 21일 辰時부터 지진이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고려사』 정종 2년 6월 무진(21일) 기록과 일치한다.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의 내용에 관해서는 崔鉉植, 2008,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의 재구성을 통한 불국사 석탑 중수 관련 내용의 재검토」 『震檀學報』 105; 노명호 · 이승재, 2009, 「釋迦塔에서 나온 重修文書의 判讀 및 譯註」 『重修文書』, 국립중앙박물관 · 대한불교조계종 참조.

57) 邊太燮, 1975, 「高麗史 編纂에 있어서 客觀性的의 問題-高麗史 評價의 肯定的의 視角-」 『震檀學報』 40; 1982, 『『高麗史』의 研究』, 三英社, 215~217쪽.

世諸子記慶州沿革」보다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앞선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명백한 오류가 아니라면 『고려사』의 기록을 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다-5)③의 ‘十月 14일’은 다-5)①의 ‘六月 14일’을 잘못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숙종 원년에 증성되었다는 가-3)⑥의 내용은 현종 원년 8월부터 시작된 보수공사가 숙종 원년에 와서 마무리된 것으로 이해하면 자연스럽다.⁵⁸⁾

다-6)은 황룡사탑과 관련된 최후의 기록이다. 이 다-6)은 高宗代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 탑이 전소된 내용을 담고 있다. 다-6)①에는 고종 25년의 기록으로 되어 있고, 다-6)②에는 무술년으로 기재하고 있다. 무술년이 고종 25년이므로, 두 기록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3)⑦의 『삼국유사』 황룡사탑조는 탑이 高宗 16년 戊戌 冬月에 ‘西山兵火’로 인해 소실되었다고 하여 스스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고종 16년은 己丑에 해당해 무술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재위년도나 간지 가운데 하나에 오류가 있음을 말해주는 기록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몽골군의 고려 침입이 고종 18년(1231) 8월부터 시작되었다⁵⁹⁾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고종 16년은 몽골의 침입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즉, 다-6)①·②의 기록과 같이 ‘고종 25년 무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언급한 기록들은 황룡사탑의 소실 월일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3)⑦에는 冬月로, 다-6)①에는 閏4월로, ②에는 10월 11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종 25년 당시 몽골군이 대략 8월 하순에 개경에 진입했으며, 9월 초에는 강화의 對岸에 출현하여 강도를 위협하는 무력시위를 전개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몽골군은 9월 이후에나 남진한 것으로

58) 『고려사』에는 예종 원년에 경주의 黃龍寺를 수리했고 尙書 金漢忠을 보내 落成케 했다(『高麗史』 卷12, 睿宗 元年 3月 丙申)는 기록이 있다. 황룡사를 전반적으로 보수한 듯하다. 이때 황룡사탑의 수리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金東賢, 1991, 앞의 논문, 100쪽).

59) 『高麗史』 卷23, 高宗 18年 8月 壬午.

볼 수 있다. 따라서 다-6)①의 윤4월보다는 가-3)⑦의 冬月(10~12월)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⁶⁰⁾ 그렇다면 다-6)②의 고종 25년 10월 11일이 황룡사탑이 소실된 정확한 일자라 할 수 있다.

가-3)⑦의 기록에는 몽골병의 침입으로 인한 피해를 ‘西山兵火’라고 표현했는데, 비슷한 표현이 나-6)③에 보이는 ‘西山大兵’이다. ‘서산대병’은 『삼국유사』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조에서도 찾아진다. ‘西山大兵已來 癸丑·甲寅年間’이라는 서술이 나타나는 것이다.⁶¹⁾ 계축과 갑인은 각각 고종 40년(1253)과 41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西山大兵’은 고종 40년 즈음의 군사충돌 즉, 몽골과의 충돌을 표현한 것이다. 고려가 서산을 몽골의 異稱으로 사용하였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서산이 왜 몽골의 이칭으로 사용된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 忠宣王의 后妃 懿妃가 元에서 죽자 유골을 大都 西山에 매장하려 했다⁶²⁾는 점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원 대도에 서산이 있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서산의 본래 명칭이 穀積山임은 李穀의 「大都穀積山新作羅漢石室記」를 통해 알아낼 수 있다.⁶³⁾ 고려인들이 대도의 곡적산이 ‘서산’이라는 별칭으로 불린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는 고려에서 ‘서산’을 몽골의 이칭으로 사용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선 논의를 통해, 황룡사탑은 여러 차례에 걸친 지진 혹은 낙뢰에 의한 훼손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로 인한 중성 또한 계속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삼국유사』 황룡사탑조에는 지진보다는 낙뢰로 인한 화재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다. 화재 기록 후에 중성 표현이 자주 사용된 이유는 황룡사탑의 재질이 나무였다는 점에 있다. 재질의 특성상 불에 약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클

60) 尹龍燦, 1991, 『高麗對蒙抗爭史研究』, 一志社, 74~80쪽.

61) 『三國遺事』 卷3, 塔像4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

62) 『高麗史』 卷108, 列傳 21 金怡.

63) 『稼亭集』 卷4, 「大都穀積山新作羅漢石室記」.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9층이나 되는 목탑의 중성 또한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국가적 사업인 까닭에 기록이 여러 차례 남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이유만으로 많은 기록이 남겨질 수 있었을까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확답하기가 어렵다. 혹시 황룡사탑이 다른 탑과는 다른 의미가 있었기에 고려시대까지 기록이 남겨진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해서는 장을 바꿔 살펴보도록 하자.

【표 1】 황룡사탑의 훼손과 중성 내용 정리

구분	시기	내용	전거	비고
신라 시대	645년(善德女王 15)	初成	遺·刹	
	718년(聖德王 17)	벽력	遺·記	孝昭王 7년(698)- 誤(遺)
	720년(성덕왕 19)	重成	遺	
	840년경(文聖王代)	傾斜	刹	
	868년(景文王 8)	벽력	記	
	871년(경문왕 11) 3월	命改造	記	
	871년 8월 12일	始廢舊 造新	刹	
	872년(경문왕 12) 7월	九層畢	刹	
	873년(경문왕 13) 정월	成	記	
고려 시대	927년(景哀王 4) 3월	경사	記	
	953년(光宗 4) 10월 8일	벽력	遺·節·東	定宗 4년(949) 10월-誤(史)
	1004년(穆宗 7년)	成	東	
	1012년(顯宗 3) 5월	修	史·節	崔沆의 수리 청원과 감독(史)
	1021년(현종 12)	중성	遺	
	1035년(肅宗 元)	벽력	遺	
	1064년(文宗 18)	중성	遺	

1095년(현종 원) 6월 14일	벽력	史·節	1095년 10월 14일-誤(東)
1095년(현종 원) 8월 21일	修	史·節	
1096년(숙종 원)	중성	遺	
1238년(고종 25) 10월 11일	全燒	遺·史·節 ·東	

* 記: 『三國史記』·遺: 『三國遺事』·刹: 皇龍寺九層塔刹柱本記·東: 『東都歷世諸子記慶州沿革』·史: 『高麗史』·節: 『高麗史節要』

II. 황룡사탑의 정치적 의미

황룡사탑이 다른 탑에 비해 황룡사구층탑의 훼손과 중성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탑의 창건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앞서 인용한 가-1)의 『삼국유사』에 의하면, 황룡사탑은 唐에 유학하고 돌아온 자장이 선덕여왕 12년에 발원하여 선덕여왕 15년에 완성을 보았다. 당시 선덕여왕이 황룡사탑을 조성한 가장 큰 이유는 ‘女主는 위엄이 없어 이웃한 국가들이 침입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 내용은 가-1)에 인용된 안홍의 『東都成立記』에도 ‘女主가 도가 있으나 위엄이 없는 까닭에 9한이 침범한다’는 동일한 내용의 서술이 있다. 다음 기록을 보자.

라-1) 9월에 (당에) 사신을 보내 말하기를, “高句麗와 百濟가 우리나라를 侵壓하여 여러 번 수십 성의 공습을 받았으며, 양국은 군사를 연합하여 기어코 우리나라를 취하려 하여 지금 이 9월에 대대적으로 거병하려는 모양입니다. 우리의 사직을 필연코 보전할 수 없을 것이며, 陪臣을 보내어 대국에 귀의하여 偏師를 빌어 구원을 받으려 하는 것이요.”라고 하였다. …(중략)… (唐)帝가 말하기를, “ …(중략)… 그대의 나라

는 婦人을 임금으로 삼아 隣國의 업신여김을 받으니, (이는) 임금을 잃고 적을 받아들이는 격이라 해마다 편안할 적이 없소이다. 내가 宗支를 보내어 그대 나라의 主를 삼으려고 하나, 스스로 혼자서 갈 수는 없으므로 마땅히 군사를 보내 보호케 하려하니 …(중략)… ”라고 하였다.⁶⁴⁾

라-1)은 선덕여왕 12년 9월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의 연합군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당에 원병을 청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이웃한 백제와의 군사적인 충돌은 『삼국사기』의 기록을 통해 살필 수 있다.

百濟 義慈王은 재위 2년인 선덕여왕 11년에 신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백제는 이해 7월에 신라의 獼猴城 등을 공격해 40여 성을 빼앗았으며, 1달 뒤인 같은 해 8월에는 大耶城을 함락시켜 城主 品釋을 죽였다.⁶⁵⁾ 그리고 다음 해인 선덕여왕 12년에는 고구려와 연합해 党項城을 취하여 당과 통교하는 길을 막으려고 하였다.⁶⁶⁾ 백제의 대야성 함락과 당항성 공격으로 신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사정은 고구려와 백제의 연합 공격으로 수십 성이 공격을 받았으며 당에 원병을 청하는 앞서 인용한 라-1)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즉 황룡사탑을 초성할 즈음에 신라는 대외적으로는 이웃한 국가인 백제와 고구려의 공격으로 국가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였던 것이다.

라-1)은 좀 더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신라의 도움 요청을 받은 唐 太宗조차도 백제와 고구려의 신라 침입을 여성군주의 탓으로 돌리고

64) 秋九月 遣使大唐上言 高句麗·百濟侵凌臣國 累遭攻襲數十城 兩國連兵 期之必取 將以今茲九月大舉 下國社稷 必不獲全 謹遣陪臣 歸命大國 願乞偏師 以存救援 …(中略)… 帝曰 …(中略)… 爾國以婦人爲主 爲鄰國輕侮 失主延寇 靡歲休寧 我遣一宗支 與爲爾國主 而自不可獨王 當遣兵營護(『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宣德王 12年 9月).

65)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宣德王 11年 7月 · 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2年 7·8月.

66)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宣德王 11年 8月 · 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3年 11月.

있기 때문이다. 당 태종은 더 나아가 자신의 친척을 보내 신라의 왕으로 삼겠다는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여성 군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넘어, 신라의 독립성을 해치려는 적대적인 행위로까지 인식이 가능한 내용이다. 이러한 기록은 당시 선덕여왕이 다스리던 신라는 백제·고구려 뿐만 아니라, 당으로부터 안전을 담보 받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선덕여왕도 당 태종이 여성군주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는 『삼국유사』 「善德王知機三事」조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唐에서 모란그림과 씨를 보내오자 선덕여왕은 나비가 없는 점을 들어 그녀에게 배우자가 없다는 점을 희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⁶⁷⁾ 여성 군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반영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讀畫法을 모르는 선덕여왕의 오해였다. 부귀를 뜻하는 모란에 시간적 제한을 담고 있어 의미를 축소하게 되는 나비를 그리는 경우는 唐代부터 없었기 때문이다.⁶⁸⁾ 선덕여왕의 이러한 태도는 당시 여성 군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과잉 반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신라가 도움을 청해야 하는 당조차 여성 군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녔다는 것은 당연히 선덕여왕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신라 내부적으로도 여성 군주의 권위는 그리 높지 않았다. 이 점은 憲安王이 선덕과 眞德女王的 사례는 법 받을 만한 일이 되지 못한다며 사위인 景文王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경우나,⁶⁹⁾ 선덕여왕이 재위한 지 16년이 지난 시점에 ‘女主는 정치를 잘 하지 못한다[女主不能善理]’라는 명분을

67) 『三國遺事』 卷1, 紀異1 善德王知機三事.

68) 조용진, 1989, 『東洋畫 읽는 법』, 集文堂, 92~97쪽.

69)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憲安王 5年 正月.

들어毗曇과 廉宗이 난을 일으킨 사례⁷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만큼 여성 군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음을 뜻하는 기록들이다.⁷¹⁾

선덕여왕의 권위가 취약했음은 國人이 선덕여왕을 추대했다⁷²⁾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국민의 추대라는 별도의 형식이 필요했다는 것은 그만큼 선덕여왕의 정통성이 미약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⁷³⁾ 따라서 선덕여왕은 외부의 침입과 내부적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만 했다. 그러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황룡사탑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황룡사탑은 존재만으로 주위의 나라들이 항복해 온다는 의미가 결합된 상징물이었다. 내부 불만을 억제하고 단합을 도모하는 효율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대외적인 불안을 이용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선덕여왕이 황룡사탑을 창건한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감지할 수 있다. 이 점은 선덕여왕이 탑의 창건 장소로 황룡사를 선택한 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당시 황룡사는 호국법회인 백고좌법회를 여는 유일한 호국사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⁷⁴⁾ 즉, 선덕여왕은 호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황룡사에 주위의 국가들을 항복하게 한다는 황룡사탑의 상징을 더함으로써 내부 단합을 극대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왕권의 강화까지 이루려는 속내가 그 바탕

70)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善德王 16年 正月.

71) 선덕여왕대 정치상황과 관련해서는 丁仲煥, 1977, 「毗曇·廉宗亂의 原因考-新羅政治社會의 轉換期에 關한 一試考-」 『東亞論叢』 14; 朱甫墩, 1994, 「毗曇의 亂과 善德王代 政治運營」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私學論叢』(上), 一潮閣; 정용숙, 1994, 「新羅 善德王代の 정국동향과 毗曇의 亂」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私學論叢』(上), 一潮閣; 李龍寬, 1995, 「善德女王代 慈藏의 政治의 活動」 『嶺東文化』 6 참조.

72)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善德王.

73) 김선주, 2013, 「신라 선덕여왕과 영묘사」 『한국고대사연구』 71, 286쪽.

74) 李基白, 1997, 앞의 책, 51~55쪽.

에 깔려 있었다고 판단된다.

신라에서 황룡사탑이 갖는 의미는 찰주본기에 “과연 三韓이 一家가 되니, 君臣의 안락함이 지금에 이른 것은 이에 힘입은 것이다.”⁷⁵⁾라는 언급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찰주본기가 찬술된 시점에서는 삼국통일의 바탕에 황룡사탑이 있었다는 인식이 존재했음을 살필 수 있다. 물론 황룡사탑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졌을 리는 만무하다. 하지만, 탑을 세운 때로부터(646)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백제(660)와 고구려(668)를 병합했다는 점에서 신라인들에게 황룡사탑이 좀 더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로 인해 황룡사탑의 위상은 크게 강화되었을 것이다. 경문왕대의 황룡사탑 개조도 황룡사탑이 갖는 인식을 활용해 왕권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선행연구도⁷⁶⁾ 통일 이후 황룡사탑이 갖는 위상을 설명해준다.

황룡사탑의 의미는 신라 말과 고려 초까지도 이어졌다. 이는 태조 왕건이 재위 3년(920)에 신라의 사신 金律에게 황룡사탑을 포함한 新羅三寶 대해 물으며, 이것의 존재 때문에 신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언급을 했다거나,⁷⁷⁾ 신라를 정벌하려 하다가 신라삼보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침범계

75) 『慶州先生案』 「黃龍寺九層塔刹柱本記」.

76) 당시 황룡사구층탑을 중성한 배경과 관련해서 왕권의 안정을 위해 황룡사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였다거나(曹凡煥, 1999, 『新羅 下代 景文王의 佛教政策』 『新羅文化』 16, 43~44쪽), 황룡사탑의 중수 목적은 王京人들의 국가의식을 고양시키는 한편 진골귀족간의 규합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無垢淨經』을 토대로 하여 국가와 왕조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金相鉉, 1999, 『黃龍寺九層塔의 建立』 『신라의 사상과 문화』, 一志社, 203쪽). 또 불교계를 재정비를 통한 왕권의 안정을 꾀한 것으로 보거나(金志垠, 2002, 『新羅 景文王의 王權強化政策』 『慶州史學』 21, 37~39쪽), 국가통합의 의지를 내세웠다는 견해도 있다(이기봉, 2012, 『新羅 景文王代의 政局運營과 災異』 『新羅文化』 39, 112쪽).

77) 『高麗史』 卷2, 太祖 20年 5月 癸丑;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景明王 4年 10月·5月 正月.

획을 철회하였다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⁷⁸⁾ 물론 황룡사탑을 포함한 신라 삼보 때문에 신라 침공 계획을 철회했다는 태조의 언급은 끈이끈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황룡사탑의 존재와 상관없이 당시 대내외적으로 상황이 무르익지 않은 탓에 그랬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적어도 황룡사탑이 철회에 명분으로 거론되었다는 점은 태조 왕건 당대에도 탑이 갖는 의미가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왕건의 황룡사탑에 대해 단순히 인지하고 있는 수준에 멈추지 않았음은 다음 기록을 통해서 살필 수 있다.

라-2) 어느 날 太祖가 崔癡에게 말하기를, “옛날에 新羅가 九層塔을 만들고 드디어 통일의 위업을 이룩하였다. 이제 開京에 七層塔을 건조하고 西京에 九層塔을 건축하여 현묘한 공덕을 빌어 여러 악당들을 제거하고 三韓을 통일하여 一家로 하고자 하니 그대는 나를 위하여 발원문을 만들라.”고 하였다.⁷⁹⁾

라-2)는 왕건이 신라가 황룡사탑을 건립한 후에 통일의 위업을 이루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고려 또한 開京에 7층탑과 西京에 9층탑⁸⁰⁾을 세워 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이다. 왕건이 황룡사탑을 거론하며 통일을 언급했다는 점은 고려 초에도 황룡사탑의 의미가

78) 『三國遺事』 卷3, 塔像4 皇龍寺九層塔.

79) 太祖謂癡曰 昔新羅造九層塔 遂成一統之業 今欲開京建七層塔 西京建九層塔 冀借玄功 除群魔 合三韓爲一家 卿爲我作發願疏(『高麗史』 卷92, 列傳5 崔癡).

80) 태조가 언급한 서경의 구층탑은 重興寺(中興寺)塔으로 파악된다. 중흥사탑 또한 定宗 2년 불이 난 것을 시작으로 明宗 25년(1195)까지 벼락을 맞거나 불이 난 사실이 『고려사』 오행지 등에 기록되어 있다(『高麗史』 卷53, 五行志1 火). 현종 원년에는 거란군이 탑에 방화한 사실이 보이기도 하는데(『高麗史』 卷3, 顯宗 元年 12月 癸丑), 이는 중흥사탑 또한 황룡사탑처럼 호국과 관련한 인식이 중요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탑 또한 명종 25년 기록을 끝으로 더 이상 기록이 찾아지지 않는다.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왕건은 선덕여왕 때부터 강조되었던 이웃국가의 복속이라는 탐의 의미를 거론하며, 은연중에 그의 일통삼한의 의지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이는 왕건이 황룡사탑을 통해 一統三韓을 이루게 된 인과관계를 긍정하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⁸¹⁾

고려시대에도 황룡사탑의 의미가 여전히 유용하게 작용했음은 앞서 편년 검토 과정에서 살펴 본 현종 3년 5월의 중성 사례(다-4)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현종 3년 5월의 보수는 앞선 3월에 慶州에 지진이 있었던 사실⁸²⁾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궁인 朝遊宮의 목재를 이용해 보수했다거나, 농번기에 백성들을 동원해 원망을 들을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인 의미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사실이다.

당시 고려는 현종 원년(1010)부터 거란의 침입으로 인해 국가가 크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황룡사탑을 보수하기 전인 현종 3년 3월에는 거란에 사신으로 간 金股傳를 억류하였으며,⁸³⁾ 4월에는 거란이 현종의 親朝를 요구하였다.⁸⁴⁾ 그러자 고려는 같은 해 5월에 내전에 승려들을 모아, 호국경전인 仁王般若經을 講하기도 했다.⁸⁵⁾ 거란과의 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려가 현종 조유궁의 재목을 이용하여 황룡사탑을 중성한 것은 외부의 적인 거란으로부터 고려의 안전을 기원하고 한편으로는 현종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해도 그리 무리한 판단은 아니다.

이러한 점은 황룡사탑의 수리를 요청하고 담당할 최항이 成宗代 폐지

81) 이강래, 2011, 『삼국사기 인식론』, 一志社, 212·254~255쪽.

82) 『高麗史』 卷4, 顯宗 3年 3月 庚午.

83) 『高麗史』 卷4, 顯宗 3年 3月 庚午.

84) 『高麗史』 卷4, 顯宗 3年 4月.

85) 『高麗史』 卷4, 顯宗 3年 5月 丙戌.

되었던 팔관회를 30년 만에 부흥시킨 인물이었다는 점⁸⁶⁾에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팔관회는 가-1)에서 보듯이 호국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행사였기 때문이다.⁸⁷⁾ 고려가 팔관회를 다시 설치하기 10일 전에 거란 聖宗이 고려에 침입을 통고했다는 점을 고려하면,⁸⁸⁾ 팔관회의 부활이 갖는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진다. 이러한 점은 현종 3년의 황룡사탑 수리가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적어도 이때까지는 호국이라는 황룡사탑의 의미가 고려 사회에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후 언제까지 황룡사탑에 대한 인식이 유효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적어도 중성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숙종 원년(가-3)⑥까지는 황룡사탑의 의미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듯하다. 그런데 仁宗과 毅宗대에 가면 황룡사탑에 대한 인식이 약해졌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기록들이 나타난다. 인종이 西京에 궁궐을 창건하려 하거나, 의종이 白州에 重興闕을 창건한 사례가 그것이다. 인종이 서경에 궁궐을 축조하려 한 것은 그 곳에 궁궐을 지으면 천하를 병합하고 金과 함께 36개국을 항복을 해온다는 점 때문이었고⁸⁹⁾ 의종이 중흥궐을 창건한 것은 北虜 즉, 金을 7년 안에 정복할 수 있다는 太史監候 劉元度の 말 때문이었다.⁹⁰⁾

앞서 사례를 보면, 의종과 인종의 궁궐의 창건 명분이 황룡사탑 조성시의 명분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황룡사탑을 대신할 수 있는 상징물이 생겨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체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황룡사탑이 갖는 의미가 그만큼 약화되었음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이 당

86) 『高麗史節要』 卷3, 顯宗 元年 11月. 『高麗史』 卷4, 顯宗 元年 11月 丙子.

87) 安啓賢, 1956, 「八關會考」, 『東國史學』 4-1, 33쪽.

88) 『高麗史』 卷4, 顯宗 元年 11月 庚寅.

89) 『高麗史節要』 卷9, 仁宗 6年 8月.

90) 『高麗史』 卷18, 毅宗 12年 8月 甲申.

시 황룡사탑의 위상 약화는 인종 23(1145)에 편찬된 『삼국사기』의 史論을 통해서 확인된다.

라-3) 이 신라의 이른바 三寶라는 것도 역시 인위적인 사치에서 나온 것일 뿐이니,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찌 이것이 필수적이겠는가. …(중략)… 태조께서 신라인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물은 것이지, 숭상할 만하다고 여긴 것은 아니다.91)

김부식은 황룡사탑을 비롯한 신라삼보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일 뿐, 국가를 다스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을 하였다. 아울러 그는 태조의 질문은 개인적인 호기심 차원이자 그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당대 김부식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한다면, 인종대 황룡사탑을 포함한 신라삼보가 신라시대 또는 고려 태조대와 같은 위상을 더 이상 지니고 있지 못하게 된 당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말해준다고 봐도 그리 큰 오해는 아닌 듯하다.

이러한 위상 약화는 황룡사탑이 고종 25년 몽골 병사에 의해 소실되고 난 뒤에 더 이상 중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기도 한다. 물론 여기에는 몽골침입으로 인한 혼란한 시기였다는 점과 원에 항복한 이후 호국의 의미를 지닌 탑을 조성하기 어려웠다는 시대적 한계도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인종과 의종대 이후 황룡사탑의 위상이 크게 약화된 탓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신라의 삼국 병합 이후에 황룡사탑의 호국이라는 의미가 강조되었고, 그 의미는 적어도 고려 전기까지는 그 영향력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 황룡사구층탑조를 비롯해 여러 기

91) 此新羅所謂三寶 亦出於人爲之侈而已 爲國家 何須此耶 …(中略)… 太祖問羅人之說而問之耳 非以爲可尙者也(『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景明王 5年).

록에 훼손과 증성 기록이 남겨진 것은 신라와 고려 초기에 황룡사탑이 갖는 의미가 영향력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종과 의종대에 들어서는 그 위상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볼 수 있고, 이후 고종 25년에 몽골병에 의해 전소되고 나서는 더 이상의 증성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는 황룡사탑의 위상약화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된다.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황룡사탑이 조성된 이후 성덕왕 17년 8월의 비락으로 인한 화재로 훼손을 당하자, 성덕왕 19년에 증성을 하였고 이후 문성왕대의 지반 불안정으로 탑이 기울고 경문왕 8년의 낙뢰로 탑이 심각한 피해를 입자, 경문왕은 재위 11년 정월에 개조명령을 내렸다. 이 작업은 같은 해 8월 12일에 시작하여 경문왕 13년 9월에 끝마쳤는데, 당시 경문왕이 황룡사탑 개조작업을 벌인 것은 황룡사탑이 갖는 호국이라는 의미를 이용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신라 말인 경애왕 4년에 북쪽으로 기울어지는 피해가 있었으나, 왕이 살해당하는 등의 혼란한 상황이어서 복구할 정도의 여력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광종 4년에 낙뢰에 의해 화재로 전소되었다가 목종 7년에 가서 재건되었으며, 현종대에 가서는 3년과 12년에 2차례 수리를 하였다. 현종 3년의 수리 목적은 거란 침입을 극복하기 위한 의도에서였다. 이후 정종 원년에 다시 낙뢰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 피해는 문종 18년에 가서 보수가 이루어졌다. 현종 원년 6월과 10월의 2차례 훼손이 기록되어 있다. 이 훼손은 현종 원년 8월부터 숙종 원년에 걸쳐 보수

되었다. 이후 황룡사탑은 고종 25년 몽골병에 의해 전소된 후에는 더 이상의 중성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삼국유사』 「황룡사구층탑」조를 비롯해 여러 기록에 훼손과 중성 기록이 남겨진 것은 신라와 고려 사회에 황룡사탑이 갖는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선덕여왕은 황룡사탑 초성 때에 탑에 호국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국난극복과 내부단합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그 의미는 신라의 삼국 병합 이후에 더욱 강조가 되었고, 고려 전기까지는 그 영향력이 유지되었다. 이는 태조 왕건이 황룡사탑의 사례를 본 따 西京에 9층탑을 세워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거나, 현종대 거란 침입을 극복하기 위해 조유궁의 재목을 이용해 황룡사탑을 수리하는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하지만 고려 의종과 인종대에 들어서면서 황룡사탑을 대신하는 중흥 쉼 등이 창건되면서 고려 내에서 갖는 위상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당시 분위기는 황룡사탑을 포함한 신라삼보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일 뿐, 국가를 다스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나, 태조의 질문은 개인적인 호기심 차원이자 그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는 김부식의 史論을 통해 알 수 있다. 황룡사탑이 고종 25년에 소실되고 나서 중성되지 못한 것도 더 이상 고려 사회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상황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문헌

『三國遺事』 『三國史記』 『高麗史』 『高麗史節要』 『慶州先生案』 『稼亭集』
『東國李相國集』

2. 단행본

邊太燮, 1982, 『『高麗史』의 研究』, 三英社
辛鍾遠, 1992, 『新羅初期佛敎史研究』, 民族社
안영숙 외, 2009, 『고려시대 연력표』, 한국학술정보(주)
尹龍嫻, 1991, 『高麗對蒙抗爭史研究』, 一志社
이강래, 2011, 『삼국사기 인식론』, 一志社
李基白, 1986,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1997
鄭求福, 1999, 『韓國中世史學史』(I), 集文堂
조용진, 1989, 『東洋畫 읽는 법』, 集文堂
황수영전집간행위원회, 1999, 『黃壽永全集』 4 금석유문, 혜안

3. 논저

金東賢, 1987, 「三國遺事와 皇龍寺址」 『三國遺事の 綜合的 檢討』, 한국정
신문화연구원
金東賢, 1991, 「慶州 皇龍寺址에 대한 遺構內容과 文獻資料와의 比較檢討」
『佛敎美術』 10
金相鉉, 1992, 「皇龍寺九層塔考」 『中齋張忠植博士華甲紀念論叢』(歷史學篇)
金相鉉, 1999, 「黃龍寺九層塔의 建立」 『신라의 사상과 문화』, 一志社
김신주, 2013, 「신라 선덕여왕과 영묘사」 『한국고대사연구』 71

- 金志垠, 2002, 「新羅 景文王의 王權強化政策」, 『慶州史學』 21
- 김호상·황보은숙, 2006, 「新羅王京에 나타난 自然現象」,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27
- 權鍾洙·李相海, 1997, 「文獻記錄을 통하여 본 皇龍寺 木塔의 結構 및 意匠에 관한 再考察」, 『建築歷史研究』 6-3
- 權鍾洙, 1998, 『韓國 古代 木塔의 構造 및 意匠에 관한 研究: 皇龍寺 木塔의 復元的 考察을 중심으로』, 成均館大學校博士學位論文.
- 南東信, 1992, 「慈藏의 佛教思想과 佛教治國策」, 『韓國史研究』 34
- 남무희, 2009, 「자장의 생애 복원」, 『한국학논총』 32
- 남무희, 2009, 「『三國遺事』에 반영된 고려 국내 유통 「慈藏傳」의 복원과 그 의미」, 『한국학논총』 34
- 노명호·이승재, 2009, 「釋迦塔에서 나온 重修文書의 判讀 및 譯註」, 『重修文書』, 국립중앙박물관·대한불교조계종
- 邊太燮, 1975, 「高麗史 編纂에 있어서 客觀性的 問題-高麗史 評價의 肯定的 視角-」, 『震檀學報』 40
- 安啓賢, 1956, 「八關會考」, 『東國史學』 4-1
- 윤순옥·황상일, 2009, 「삼국사기를 통해 본 한국 고대의 자연재해와 가뭄주기」, 『대한지리학회지』 44-4
- 이기봉, 2012, 「新羅 景文王代의 政局運營과 災異」, 『新羅文化』 39
- 이민정·김영석, 2010, 「경주지역 석조 문화재에 대한 고고지진학적 접근」, 『대한지질학회 학술지』
- 李基白, 1978, 「皇龍寺와 그 創建」, 『新羅時代 國家佛教와 儒教』, 한국연구원
- 李龍寬, 1995, 「善德女王代 慈藏의 政治的 活動」, 『嶺東文化』 6
- 정용숙, 1994, 「新羅 善德王代의 정국동향과 毗曇의 亂」,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私學論叢』(上), 一潮閣
- 丁仲煥, 1977, 「毗曇·廉宗亂의 原因考-新羅政治社會의 轉換期에 관한 一

試考- 『東亞論叢』 14

- 曹凡煥, 1999, 「新羅 下代 景文王의 佛教政策」 『新羅文化』 16, 1999
- 趙由典, 1992, 「新羅 皇龍寺 九層木塔址 基壇土 出土 遺物の 性格」 『中齋 張忠植博士華甲紀念論叢』(歷史學篇)
- 朱甫噉, 1994, 「毗曇의 亂과 善德王代 政治運營」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私學論叢』(上), 一潮閣
- 秦弘燮, 1987, 「三國遺事に 나타난 塔像-皇龍寺塔像을 중심으로-」 『三國 遺事の 綜合的 檢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崔鉉植, 2008,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의 재구성을 통한 불국사 석탑 중수 관련 내용의 재검토」 『震檀學報』 105
- 최희준, 2011, 「『三國遺事』 皇龍寺九層塔條에 대한 재검토와 阿非의 출처」 『한국학논총』 36
- 小田省吾, 1920, 「三國史記の稱元法并に高麗以前 稱元法の研究」 上·下 『東洋學報』 10-1·2

Abstract

Consideration of the Chronology of the section of Hwangryongsagucheungtap from 『Samkungnyusa』

Heo, Inuk

To synthesize the above discussions, after the initial construction of Hwangryongsatap, it was damaged from the fire caused by the lightning in August of the 17th year of King Seongdeok's reign, and was reconstructed in the 19th year of King Seongdeok's reign. Then King Kyeongmun ordered for remodeling, after the tower was tilted from ground instability during King Munseong's rule and the damaged from the lightnings in the 8th year of King Kyeongmun. This remodeling work started on August 12 of the same year, went through the foundation work such as organizing ganjeon, and the wooden work up to the ninth floor was completed in July of the following year, or the 12th year of King Kyeongmun's reign. Then the finishing work of dancheong (traditional multicolored paintwork on wooden buildings) was completed in September of King Kyeongmun's reign. The tower was tilted again to northern direction in the 4th year of King Kyeonggae's reign, but was not restored because the latter part of the Silla Dynasty was the time of chaos.

In Goryo Dynasty, the tower was completely destroyed by fire from the lightning in the 4th of King Gwangjong's reign, and was then reconstructed

in the 7th year of King Mokjong's reign. Further damages from the earthquake in March of the 3rd year of King Hyeonjong's reign was repaired in May of the same year, and another repair is recorded to have taken place in the 12th year of King Hyeonjong's reign. The damage from lightning occurred again in the first year of King Jeongjong's reign and there was another reconstruction in the 18th year of King Munjong's reign. In the first year of King Heonjong's reign, two damages were recorded in June and October, but it is not certain whether the damage in June was recorded twice or the damage actually occurred at two different occasions. This damage was repaired from August of the first year of Hunjong's reign to the first year of King Sookjong's reign. the tower of Hwangryongsa was not further reconstructed after the complete destruction in the 25th year of King Gojong's reign by fire caused by the Mongolian military.

After the union of three countries by the Silla Dynasty, The Nine-floor-tower of Hwangryong temple's patriotism has been highlighted. The power of the meaning continued to live until the former part of the Koryo Dynasty, and this can be shown by the founder Taejo Wang Geon's building of nine-floor-tower in Seogyeong to express his will to unify the nation, and repairing of The Nine-floor-tower of Hwangryongsa during King Hyeonjong's rule to overcome the invasion of Khitans, using the lumbers of Joyugoong. The record of damages and reconstruction of Hwangryongsatap in section of the Hwangryongsagucheungtap from 『Samkungnyusa(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and many other records show that the tower had great influence in the societies of Silla and Goryo. However, the status of the Nine-floor-tower of Hwangryongsa weakened greatly from King Injong's rule of Goryo and it no longer had any meaning with the destruction in the 25th

사학연구 제113호(2014. 3)

year of King Gojong's reign.

Keywords : The nine-floor-tower of Hwangryongsa, Hwangryong temple,
Queen Sunduk, Taejo Wang Geon, national protection, the
Palguan-huae, the three treasure of Silla